



08-03 (통권 281호)
2008.1.18

韓國經濟週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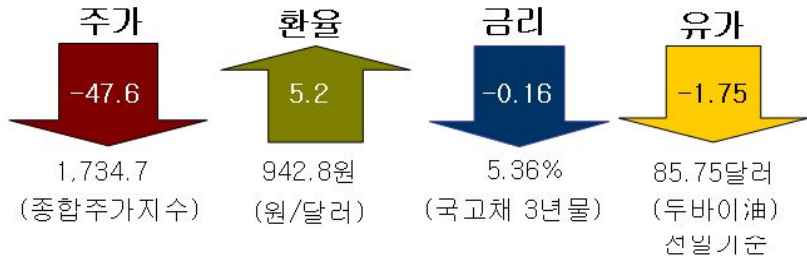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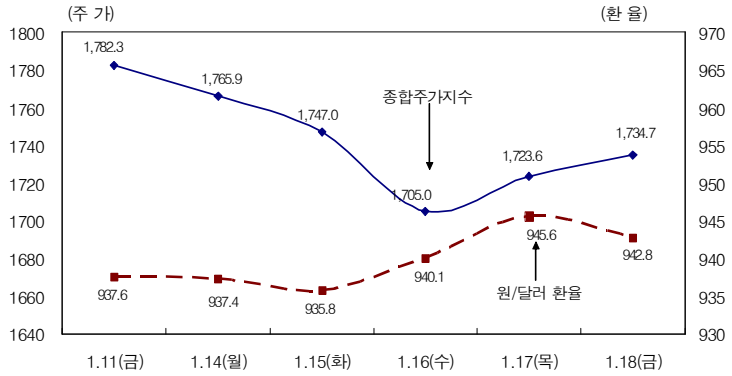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원, 홍순직, 이부형, 허만울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030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02-3669-403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11~1.18)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	1
주간 경제 동향	22
□ 실물 부문 : 원재료 및 중간재 물가 고공 행진	22
□ 금융 부문 : 주가, 금리, 환율의 트리플 약세	23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3669-4121, swan@hri.co.kr)
 □ 계량 분석실 : 한 상 곤 연 구 위 원 (3669-4120, sghan49@hri.co.kr)

Executive Summary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

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는 성장 잠재력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경제가 저성장 함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 하에 신정부에서는 잠재성장률을 7%까지 제고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과 하락 원인을 파악하고, 잠재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2. 잠재성장률 추정과 하락 요인

한국 경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률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 특히, 인구 증가율 둔화와 고령화 진전, 저축률 하락 및 설비투자 부진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성장패턴 자체가 구조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원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1~96년 기간 중 6.6%에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4.5%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장회계 별로 하락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노동 부문의 경우 전통적으로 인구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 분석은 인구 규모 및 증가율의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성장률 둔화가 우려되면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최근 들어 고령화 지수와 노인부양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커다란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교육수준은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의 심화 등에서 나타나듯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 정도 및 사회적 활용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자본 부문을 보면, 1981~1997년 기간 중 연평균 12.0%의 증가율을 보이던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기간을 전후하여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설비투자의 부진은 자본스톡 증가율의 둔화로 이어져 자본의 축적과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의 확보에 주안점을 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 현상의 심화와 유동성 제약의 완화로 인한 저축률

의 하락은 궁극적으로는 자본스톡 증가율의 하락과 이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의 기업대출이 가계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중요소생산성 부문은 우리나라가 지난 1990년대부터 연구개발을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R&D투자 규모를 꾸준히 증대시켜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R&D 투자는 그 절대 규모 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또한 R&D 스톡 축적도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GDP대비 3% 특허건수가 OECD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점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3. 정책 방향과 과제

(기본 방향) 우리나라 경제는 노동, 자본 등 요소 투입에 의존한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노동과 자본 투입은 성장기여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중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 경제가 이미 선진국형 성장구조로 전환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경제 정책 방향은 중요소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R&D스톡 증대와 효율성 제고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며, 노동 공급은 양적 투입보다는 질적 수준 향상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져야 한다. 물질 자본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의 토대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투자 유인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을 위하여 국가 경영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신성장동력산업의 발굴, 금융·물류·통상 등의 허브화 추진, 국토 활용 효율성 제고, 법 질서 준수 등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차원적인 정책들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세부 과제) 첫째, 국가 R&D의 절대 금액을 대폭적으로 늘리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R&D 투자금액 및 스톡 측면에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혀나가기 위하여, 전체 R&D 규모를 현 GDP의 3% 미만에서 5% 이상으로 증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R&D 예산을 대폭 증대하고, 민간(응용기술)과의 역할 분담을 감안하여 기초 과학 분야에 주력해야 한다. 민간의 R&D 투자 유인을 위하여 R&D비용의 세액 공제, 정부 예산의 매칭 투자, 저렴한 R&D 콤플렉스 공급 등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위하여 R&D관리부서

단일화, 기술개발부터 상업화까지 체계적인 지원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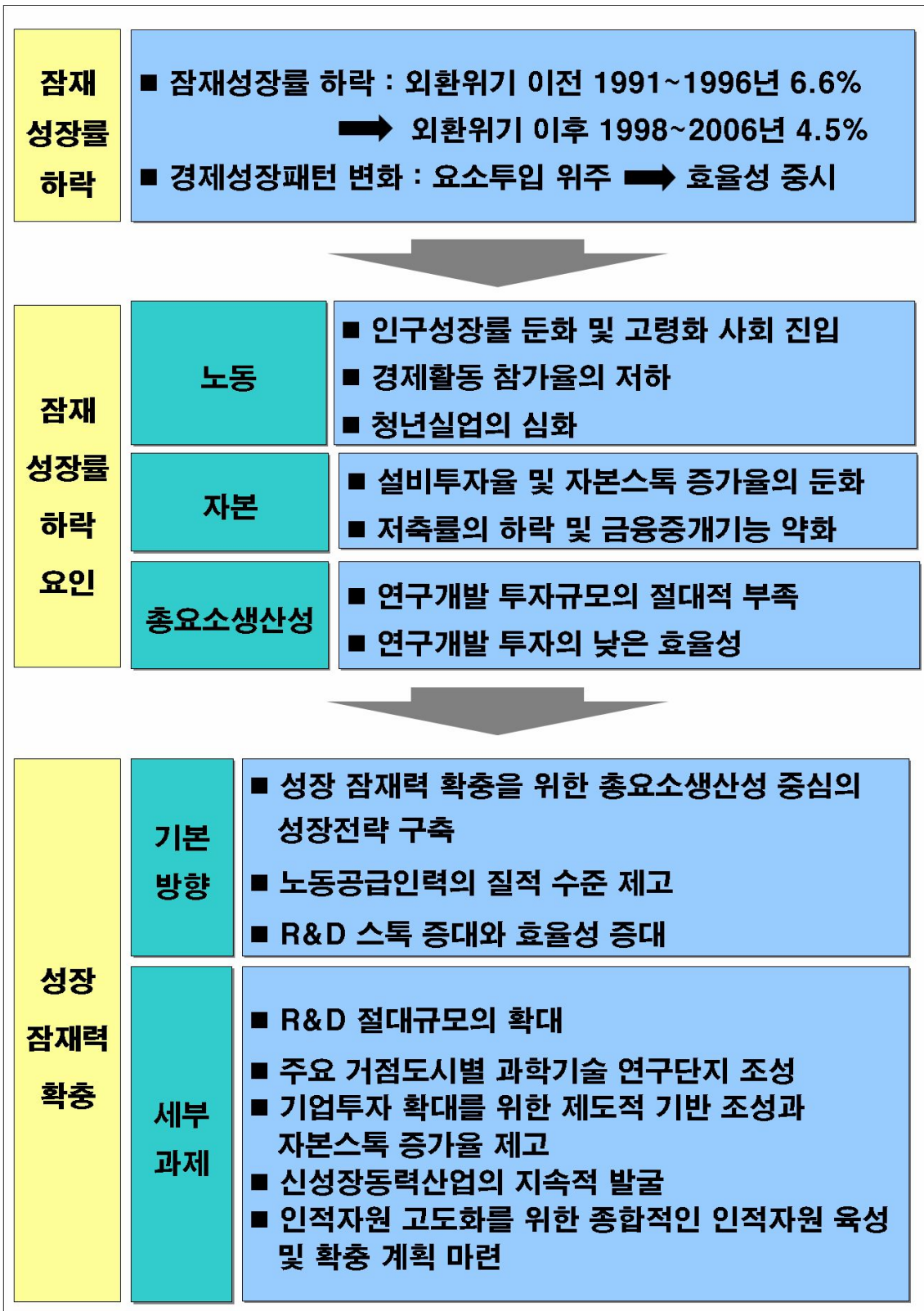
둘째, 국내 주요 거점 도시별로 과학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여 기초 과학의 역량을 제고하고 인력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 새롭게 조성하는 연구단지는 선진국 수준의 연구시설 확보, 산학연 연계 도로, 교육·의료·주거 등 모든 측면에서 독립적인 도시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 차원의 투자를 통하여 저렴한 가격에 민간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내외국인의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해야 한다. 기업 규제를 제거하는 수준보다 한발 더 나아가 투자 인센티브 패키지를 만들고, 조세·토지비용·노사관계·행정규제·외국인 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는 경제 특구를 조성해야 한다.

넷째, 신성장 동력 산업의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기존산업의 첨단화를 위해서 신기술 융합 제품 개발 촉진, 미래형 첨단 제품 개발 강화, R&D·디자인·기술경영 능력 제고 투자,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의료·교육, 사업서비스, 관광 등 서비스업은 세계 혜택, 시장 개방,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대형화, 선진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및 관리 통합화, R&D와 사업화 연계 강화, 신기술 인력 양성 지원금융제도 도입, 국가적인 지적 재산 형성 전략 구축 등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적 자본의 고도화를 위한 종합적인 인적 자원 육성 및 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인력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경제활동 여건 개선이 필요하며, 고령 인력 활용을 위한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정착 지원, 평생교육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교육정책의 연관 관계를 점검하고 신규 산업인력 육성 차원의 계획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 우수인재의 수입이나 재외 한국인의 자유로운 국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 등 생활 여건 개선이나 배타적 이민정책의 정비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적 자원 육성을 위해서는 공교육 체계 정비, 대학과 산업체 간의 연계 강화뿐만 아니라, 노령인력의 재교육, 퇴직자의 전직 지원 교육 등 평생 교육 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실업보험 지급과 연계하는 등 실질적인 재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 >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

1. 문제의 제기

- 차기정부의 핵심 경제공약 사항인 ‘대한민국 747’ 비전의 실천을 위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7%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계기로 잠재성장률 수준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대되고 있음
 - 차기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차기정부의 핵심 경제공약 사항인 ‘대한민국 747’ 비전의 실천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6%와 5년간 평균 잠재성장률 7% 달성을 내세우고
 - 7% 잠재성장률 달성을 위해 경제체제를 탈바꿈하고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음
-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환위기 이후 학계와 정책당국자들의 지대한 관심사 향 중의 하나였으며, 2000년대 초반의 실질 경제성장률 하락은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킴
 - 특히 2003년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유사한 경제발전 단계 상에 위치해 있는 동아시아 경쟁국들의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을 계기로¹⁾
 - 한국경제의 성장률 저하가 경기순환적인 측면에서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잠재성장률의 추세적인 하락을 반영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또한 인구증가율의 둔화와 고령화의 진전, 설비투자의 부진 및 저축률의 하락 등 한국경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들로 인하여 한국경제의 성장패턴이 구조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생산가능연령인구의 빠른 증가에 힘입은 취업자 수의 추세적 증가와 높은 가계저축률은 그동안 한국경제가 양적인 투입위주의 성장패턴을 이어가는 데에 크나큰 기여를 하였음

1) 2003~2006년 기간 중 동아시아 경쟁국들과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해보면 한국 4.3%, 대만 4.6%, 홍콩 6.6%, 싱가포르 6.6%를 각각 기록함.

- 그러나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의 진전, 설비투자의 부진 그리고 가계저축률의 하락 등은 한국경제가 양적인 투입위주의 성장패턴을 견지하는 데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수준에 대한 국내 연구기관들의 추정 결과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잠재성장률 결정요인별 진단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함

2. 잠재성장률의 추정 및 하락 요인

1) 잠재성장률 추정

-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는 방법은 생산함수 접근법과 시계열 접근법으로 대별해 볼 수 있으며, 추정목적에 따라 접근법을 달리하여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생산함수 접근법은 잠재성장률의 변화를 성장회계요인을 중심으로 미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시계열 접근법은 시계열 상의 추세 변동을 예측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 중 필터링을 통한 추세 GDP 방식은 경기순환 상의 현 위치를 파악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에 실증분석에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음
- KDI(2002), 한국은행(2005) 등은 생산함수 접근법을 사용하여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하였는데, 추정 상의 일부 차이를 제외하곤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인 하락국면에 있다는 점에서는 서로 일치하고 있음
 - KDI(2002)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과거의 한국 및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2003~2007년 기간 중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을 4.8~5.4% 수준으로 추정하였는데
 - 이는 1991년~1995년 기간 중 잠재성장률 추정치인 6.8%와 1996~2000년 기간 중 5.7%에 비하면 크게 낮아진 수준임
 - 한국은행(2005)은 2005~2014년 기간 중 잠재성장률이 4.6%(중립적 전망)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1991~2000년 기간 중 추정 잠재성장률인 6.1%에 비하면 1.5%p 하락한 것임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2007)은 외환위기 이후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자본투입의 성장기여도가 저하된 것을 꼽으며, 2001~2005년 기간 중 잠재성장률은 4.1% 수준에 그친 것으로 추정하였음

< 잠재성장률 추정치 비교 >

	추정기간	추정방법	잠재성장률 추정치
KDI	2003 ~ 2007	생산함수접근법	4.8% ~ 5.4%
한국은행(중립적 전망)	2005 ~ 2014	생산함수접근법	4.6%
STEPI	2001 ~ 2005	생산함수접근법	4.1%

자료 : KDI,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 2003~2012」, 200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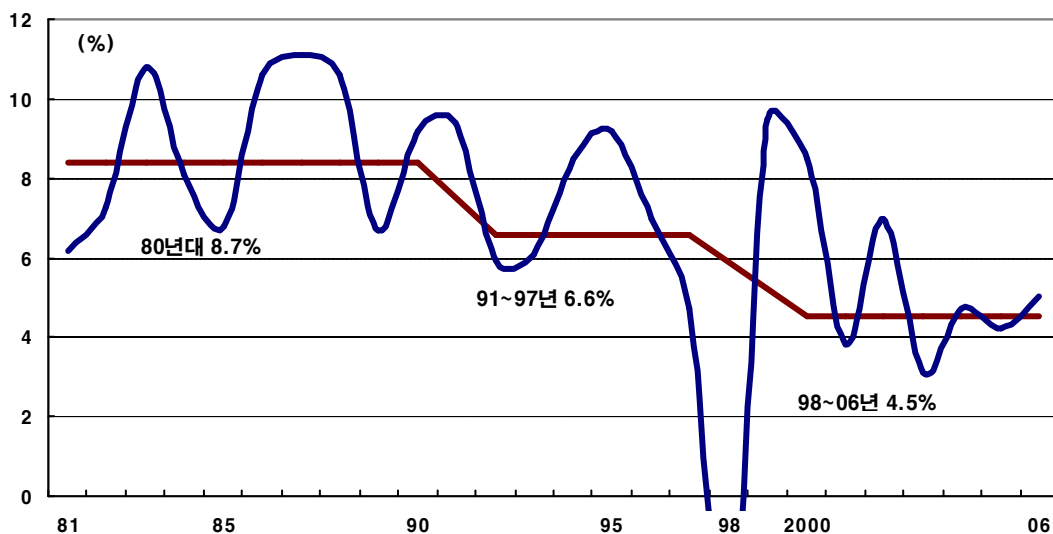
한국은행,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원인과 향후 전망」, 2005. 8.

STEPI, 「R&D 투자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2007.

- 또한 본 연구원의 추세 GDP 방식을 통한 잠재성장률 추정 결과에 의하면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1~97년 기간 중의 6.6%에서 외환위기 이후 기간인 1998~2006년 중에는 4.5%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외환위기 이후 두드러진 기업들의 보수적인 경영행태 정착과 이로 인한 설비투자 부진으로 경제의 회복력이 많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 등으로 양적 투입위주의 성장패턴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한국경제가 효율중심의 성장패턴으로 경제구조가 전환되어 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1) 잠재성장률은 단순추세법(H-P 필터링)을 이용하여 추정

2) 기간중 연평균임.

2)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

○ 성장회계 요인별 기여도 및 기여율

- 1990년대 이후 전반적인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 속에서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도 함께 감소되어 온 것으로 나타남
 - 외환위기 이전의 과잉투자 상황을 반영하여 1991~2000년 기간 중 2.7%p에 달하였던 자본의 성장기여도가 2001~2005년 기간 중 1.2%p 하락한 1.5%p에 머물러 다른 성장요인들에 비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음
- 한편, 잠재성장률 변동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을 나타내는 기여율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기여율이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총요소생산성²⁾의 기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³⁾
 - 외환위기 이전의 급속한 물적자본 축적으로 인하여 1990년대 자본투입의 성장기여율은 여타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이로 인한 투자의 비효율성으로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답보상태를 나타냄
 - 2000년대 들어 자본투입의 성장기여율이 기업들의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감소한 반면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이 증가추세를 보여옴
 - 이는 경제발전 단계에서 경제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인적자본과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게 되고 이는 무형자본의 축적으로 이어져 한국경제가 효율성을 보다 중시하는 경제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

2) 총요소생산성이란 생산함수식에서 자본과 노동의 투입에 의해서 설명되지않는 잔차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연구개발, 대외개방 효과, 금융 및 노동시장의 효율화 등 여러 요인들의 기여분이 합산되어 있는 것임

3) 성장회계법에 의하면 경제성장률은 노동투입, 자본투입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의 기여율로 분해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R&D는 직접적으로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침

< 잠재성장률 투입요소별 기여도 및 기여율 추이 >

(%)

	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1~2005
잠재성장률	7.2(100%)	8.0(100%)	6.1(100%)	4.1(100%)
노동	2.4(33.3%)	1.9(23.8%)	1.2(19.7%)	0.9(22.0%)
자본	3.3(45.8%)	3.1(38.8%)	2.7(44.3%)	1.5(36.6%)
총요소생산성	1.5(20.8%)	3.0(37.5%)	2.2(36.1%)	1.7(41.5%)

자료 : STEPI, 「R&D 투자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2007.

주 : ()내는 성장요인별 기여율.

(1) 노동부문의 기여도 하락 요인

○ 인구구조의 변화

- 연령대별로 상이한 경제행위로 인하여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
 - 예를 들어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투입의 감소로 이어져 직접적으로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 피부양인구 비중의 상승은 저축률 하락을 초래하여 자본축적을 저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통계청에 의하면 2006년 7월 1일 기준 총인구(장래추계인구)는 4,829만 7천 명으로 전년대비 0.33% 성장한 것으로 드러남
 - 2005년 합계출산율⁴⁾은 1.08명으로 1983년에 대체출산율(현재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합계출산율, 2.1명) 수준까지 낮아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4) 합계출산율 :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 수

< 인구성장률 추이 >

(%)

	1970	1980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인구성장률	2.21	1.57	0.99	1.01	0.84	0.74	0.56	0.50	0.38	0.21	0.33
합계출산율	4.53	2.83	1.59	1.65	1.47	1.30	1.17	1.19	1.16	1.08	-

자료 : 통계청, 「2006 한국의 사회지표」, 2007. 1.

- 한편 인구성장률의 둔화와 함께 인구구성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음

- 2006년 총인구의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0~14세의 유년인구는 총인구의 18.6%,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71.9%, 65세 고령인구는 9.5%를 차지하고 있음
- 출산율 둔화로 인하여 유년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는 계속 높아져 지난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⁵⁾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

<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추이 >

(%)

연령대별	1970	1980	1990	2000	2006	2017	2018	2026	2030	2040
0~14세	42.5	34.0	25.6	21.1	18.6	13.0	12.7	11.7	11.4	10.3
15~64세	54.4	62.2	69.3	71.7	71.9	73.2	72.9	67.5	64.4	57.2
65세 이상	3.1	3.8	5.1	7.2	9.5	13.8	14.3	20.8	24.3	32.5

자료 : 통계청, 「2006 한국의 사회지표」, 2007. 1.

5) 사회의 고령화 정도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는데 비중이 7%이상, 14%이상, 20%이상인 경우를 각각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라 일컬음

-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함께 고령화지수와 노인부양지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옴

- 2006년 고령화지수(0~14세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51.0으로 1970년의 7.2에 비해 약 7.1배 증가하였음
-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노년층 인구의 비율)도 계속 증가하여 2006년 13.2%로 1970년에 비해 7.5%p 증가하였음

< 고령화 지수 및 노년부양비 추이 >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고령화 지수	7.2	11.2	20.0	34.3	36.3	38.7	41.3	44.1	47.3	51.0
노년 부양비	5.7	6.1	7.4	10.1	10.5	11.1	11.6	12.1	12.6	13.2
65세이상 인구비	3.1	3.8	5.1	7.2	7.6	7.9	8.3	8.7	9.1	9.5

자료 : 통계청, 「2006 한국의 사회지표」, 2007. 1.

주 : 1) 고령화 지수 = (65세이상 인구 / 0~14세 인구)×100

2) 노년부양비 = (65세이상 인구 / 15~64세 인구)×100.

- 한편 통계청(2005)⁶⁾의 인구구조 전망을 토대로 한 한국은행(2006)⁷⁾의 경제성장률 모의실험에서도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이 성장둔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함

- 한국은행(2006)에 의하면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여 고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추정되는 2030년 이후로는 경제성장률이 2%대로 진입한 후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2050년 경에는 1.5%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⁸⁾
- 이는 2000~2005년 간의 평균 성장률 5.2%에 비하면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성장률이 3%p 이상 하락하는 것을 의미함

6)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2005.

7) 한국은행,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006.

8) 참고로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내생적 성장모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자본의 축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의 수치임

< 경제성장률 추이(2006~2050) >

(%)

	2006~2010	2011~2020	2021~2030	2031~2040	2041~2050	전체평균
평균성장률	4.12	3.43	3.33	2.64	1.45	2.87

자료 : 한국은행,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2006.

○ 경제활동참가율의 저하

- 1980년대 2.31%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던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는 고령화 현상의 진전으로 1990년대 1.27%로 하락한 데 이어 최근에는 0.50%까지 증가세가 둔화되었음

· 1990년대 들어 노동력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은 1970년대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1980년대 말 거의 완료된 데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⁹⁾

< 노동력 증가율 추이 >

(%)

	1980~89	1990~96	1997~2000	2001~06
생산가능인구	2.31	1.49	1.05	0.50
경제활동인구	2.47	2.41	0.93	1.38
취업자	2.60	2.49	0.44	1.52

자료 : 통계청, KOSIS.

- 1990년대 중반까지 상승추세를 보이던 경제활동참가율은 외환위기 직후 크게 낮아진 후 다시 완만한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음

· 외환위기 직후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한 것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9) 한국은행,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원인과 향후 전망」, 2005.8.

들의 구조조정 여파와 자동화 진전으로 고용 흡수력이 저하된 데에 기인한 바가 큼

<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

	1970	1980	1990	1995	1997	1998	2001	2003	2005	2006
경제활동참가율	57.6	55.9	60.0	61.9	62.5	60.6	61.3	61.4	61.9	61.7
남자	77.9	76.4	74.0	76.4	76.1	75.1	74.2	74.6	74.4	74.0
여자	39.3	42.8	47.0	48.4	49.8	47.1	49.2	48.9	50.0	50.2

자료 : 통계청, KOSIS.

주 : 경제활동참가율은 구직기간 1주 기준.

-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등을 통한 전반적인 경제활동참가율¹⁰⁾의 상승은 유효노동력의 증대로 단기적인 성장률 상승효과가 발생하나 장기적으로는 성장률 상승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드러남

- 한국은행(2006)¹¹⁾의 분석에 의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등으로 전반적인 경제활동참가율이 2001년에 비해 5%p 또는 10%p 상승할 경우 성장률은 2050년까지 평균 3.2%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등 과거의 요소투입 확대를 통한 성장전략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며 총요소생산성의 증대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경제활동참가율 확대시의 성장률 추이 >

(%)

	2006~10	2011~20	2021~30	2031~40	2041~50	전체 평균
5%p 상승	4.43	3.75	3.67	3.02	1.86	3.23
10%p 상승	4.59	3.75	3.67	3.01	1.86	3.25

자료 : 한국은행,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006.

10) 15세 이상 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11) 한국은행,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006.

○ 청년실업의 심화

- 한국의 학력수준은 높은 교육열에 힘입어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교육수준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 정도 및 사회적 활용도는 낮은 실정임

- 인적자본의 육성을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필수적이며 한국의 교육수준은 높은 교육열을 반영하여 양적 확대를 경험해옴
- 6세 이상 총조사인구 중 대졸 이상의 학력수준을 가진 인구의 비중은 1995년의 14.3%에서 2005년에는 24.0%로 급증하였음
- 그러나 산업수요에 비해 과도한 고학력자의 증가로 인하여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학력자의 기대임금 상승으로 3D업종에서는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으며 노동력 부족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산업 현장 유입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2000년 이래 경제성장률이 3~8% 사이에서 등락하고 있는 동안에도 청년실업률은 8%내외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어 최근의 청년실업은 경기적인 요인과 무관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현재 한국사회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청년실업의 해결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 6세 이상 총조사인구의 학력구성비 추이 >

(%)

학력별	1995			2000			2005		
	학력 구성비	남자	여자	학력 구성비	남자	여자	학력 구성비	남자	여자
초졸이하	33.8	28.6	39.1	30.6	25.8	35.3	28.1	23.9	32.3
중졸	16.2	15.4	17.1	14.4	13.8	15.0	12.2	11.7	12.8
고졸	35.6	38.2	33.0	37.0	39.1	34.8	35.6	37.4	33.9
대졸이상	14.3	17.8	10.8	18.1	21.3	14.9	24.0	27.0	21.1

자료 : 통계청, KOSIS.

(2) 자본부문의 기여도 하락 요인

○ 설비투자율 및 자본스톡 증가율의 둔화

- 1981~1997년 기간 중 연평균 12.0%의 증가율을 보이던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기간을 전후하여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성장잠재력 확충에 애로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설비투자의 부진은 경기회복력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자본축적을 저하시켜 성장잠재력 약화문제를 유발하게 됨

<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

	1981~1985	1986~1990	1991~1996	1997~2000	2001~2006
설비투자 증가율	6.62%	18.06%	11.40%	4.63%	2.4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설비투자의 부진은 자본스톡 증가율의 둔화로 이어져 지속적인 자본의 축적과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의 확보에 주안점을 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됨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5)에 의하면 한국의 자본스톡 증가율은 1970년대의 11.3%에서 1980년대에는 10.5%로 낮아졌으며, 외환위기 이후인 1997~2004년 간에는 4.9%로 더욱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같은 기간 중 경제성장률도 1980년대의 8.7%에서 1997~2004년에는 4.2%로 198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짐

< 경제성장률 및 자본스톡 증가율 추이 >

	1971~80	1981~85	1986~90	1991~96	1997~04
경제성장률	7.3%	7.8%	9.6%	7.3%	4.2%
자본스톡증가율	11.3%	9.5%	11.5%	11.3%	4.9%
설비스톡증가율	18.6%	9.7%	13.6%	11.8%	4.0%
건물스톡증가율	9.6%	9.4%	10.7%	11.1%	5.4%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술혁신과 경제성장」, 2005., 통계청, KOSIS.

주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자본스톡 추계치는 영구재고법을 이용하였으며, 감가상각률은 기계설비와 건물 각각에 대해 0.1과 0.04를 적용한 것임.

○ 저축률 하락과 금융중개기능 약화

- 인구 고령화 현상의 심화와 유동성 제약의 완화로 인한 저축률의 하락은 궁극적으로는 자본소득 증가율의 하락과 이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짐

- 1980년대 후반 이후로 한국의 총저축률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저축률이 급락하고 있음
- 가계부문의 저축성향을 보여주는 순저축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7~2000년 기간 중 평균 16.1%를 기록한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01~2006년 기간 중 순저축률 평균은 4.2%에 머물러 있음
- 가계저축률 하락의 원인으로는 노년 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의 상승, 사교육비 지출의 증대, 소비자 금융의 확대로 인한 유동성 제약의 완화 등을 들 수 있음

< 총저축률 및 가계부문의 순저축률 추이 >

(%)

	1981~1985	1986~1990	1991~1996	1997~2000	2001~2006
총저축률	28.3	37.8	36.5	35.5	32.5
가계 순저축률	11.5	21.6	19.7	16.1	4.2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이러한 낮은 수준의 국내 저축률은 국내에서의 투자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가중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본축적을 위축시키고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게 됨

- 한국은 1960년대 초반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는 국내저축의 부족으로 해외 차입에 의존한 성장전략을 추구하였으며
- 경제성장과 더불어 저축률이 빠르게 상승하자 국내저축이 자본축적을 위한 투자재원으로서 크게 기능하게 되었음
- 현재의 상황에서는 저축률의 저하가 설비투자 부진의 주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장기적으로는 저축률의 저하가 투자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잠재성장률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수익성을 보다 더 중요시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기업대출은 위험부담이 적은 개인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음
 - 외환위기 이후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로 인하여 은행들의 수익성은 개선되었으나 산업자본으로서의 기능은 약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¹²⁾

- 따라서 가계저축률의 저하와 기업대출의 상대적 위축은 궁극적으로 가계부채의 증대 및 기업 자금조달 비용의 상승을 가져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시키게 됨
 - 금융기관들의 안정성 및 수익성 위주의 대출 관행이 정착될 경우 위험부담이 따르는 기업의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관련 대출을 꺼리게 되어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신성장동력산업의 발굴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됨

< 금융기관의 개인 및 기업 대출금 추이 >

(단위: 10억 원, %)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가계대출	89,060.4	88,155.7	137,224.9	257,542.1	313,921.7	387,892.1
산업대출	286,382.4	260,476.3	276,375.1	282,889.6	313,543.9	389,930.5
가계대출 비중	23.7	25.3	33.2	47.7	50.0	49.9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3) 총요소생산성 부문의 기여도 하락 요인

○ 연구개발 투자규모의 절대적 부족

- R&D 투자는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총요소생산성 증대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¹³⁾

12) 한국은행, 「외국 금융기관 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친 영향」, 금융경제연구, 2005.

- 하준경(2004)에 의하면 1991~00년 기간 중 경제성장률에 대한 요인별 기여율¹⁴⁾에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율은 22.7%를 나타내었으며, R&D 투자스톡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기여율은 47.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은 지난 90년대부터 연구개발을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R&D 투자규모를 꾸준히 증대시켜옴**
 -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기간 중 설비투자가 전반적인 정체국면을 나타낸 반면 연구개발투자는 규모 면에서 꾸준히 증가해 옴
 - 이와 더불어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90년대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현재 2.99%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OECD국가 중 상위권 수준임

< 한국의 연구개발투자 및 설비투자 추이 >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연구개발투자(조원)	9.4	13.8	16.1	17.3	19.1	22.2	24.2
GDP 비중(%)	2.37	2.39	2.59	2.53	2.63	2.85	2.99
설비투자 증가율(%)	18.3	33.6	-9.0	7.5	-1.2	3.8	5.7

자료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06/2.,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 **그러나 최근의 연구개발투자의 꾸준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투자 규모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연구개발투자 규모의 절대액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나라들은 지난 50년간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2% 이상을 기록한 반면,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0년대 이후에야 동 비중이 2%를 넘어서, 연구개발투자의 역사가 짧고 R&D 투자 누적 규모가 작아 투자 인프라 측면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음
 - 절대액 면에서 2004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비는 283억 달러(구매력평가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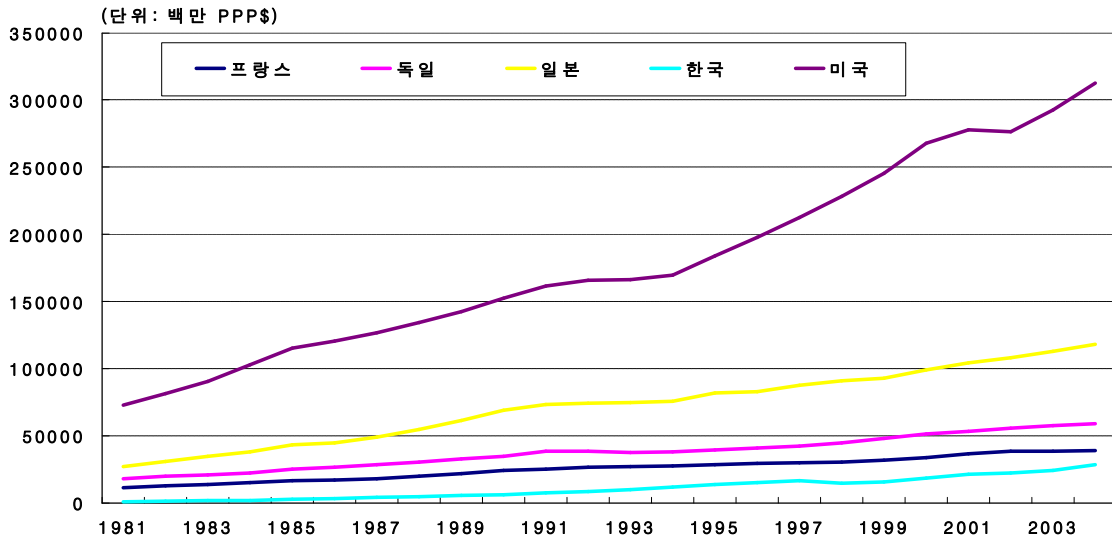
13) R&D는 직접적으로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인적자본 및 물적자본 축적에도 영향을 미침.

14) 1991~00년 기간 중 경제성장률을 100으로 보았을 때 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표시함

러 기준으로 일본의 1/4(1,180억 달러), 미국의 1/11(3,125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고

- 나아가 1981~2004년 동안 누적 연구개발 투자비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2,600억 달러로 일본의 약 1/7(17,293억 달러), 미국의 약 1/17(42,964억 달러) 수준에 지나지 않음

< 주요국의 R&D 투자 추이 >



자료: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 2006/1.

○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저하

- 또한 R&D 투자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하여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점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 상대적 투자효율성 지표 중 하나인 GDP대비 3극 특허건수¹⁵⁾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의 GDP대비 3극 특허건수는 2003년 현재 0.8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인 1.8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음
 - 또한 R&D 투자 중 기초연구 비중과 정부부문의 연구개발 비중이 낮은 점, 연구개발투자 집약도가 첨단·고기술 업종으로 갈수록 주요 선진국들과의 격차가 심화된다는 점 등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15) 미국특허청(USPTO), 유럽특허청(EPO), 일본특허청(JPO)에 모두 등록된 특허 건수

< 국가별 3급 특허 점유율(2003년) >

	3급 특허 건수	3급 특허 점유율(%)	GDP대비 3급 특허건수
미국	19,222	37.1	1.3
일본	13,564	26.2	4.1
독일	7,111	13.7	3.3
한국	747	1.4	0.8
OECD 계	51,754	100.0	1.8

자료 : OECD, Patent Database, 2006.

3. 정책 방향과 과제

1) 기본 방향

-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경제 정책이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함**
 - 우리나라 경제는 노동, 자본 등 요소 투입에 의존한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임
 - 특히 최근 들어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인구증가율과 합계출산율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취업자 수 등 노동투입의 증대를 통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노동투입의 기여율이 하락하는 것과는 상반되게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미 한국경제는 생산성 증가 중심의 선진국형 성장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에 따라, R&D 스톡 증대와 효율성 제고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임**
 - 우리나라 R&D는 기초 과학 및 기술 분야의 R&D 스톡 절대량 부족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기초 과학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확대가 절실히 요청됨
 - 또한, 연구개발 성과를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는 R&D 효율성 제고도 각별히 노력해야 할 부분임¹⁶⁾

- **노동의 공급은 양적 투입보다는 질적 수준 향상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져야 함**
 - 우리나라는 초중고 교육에 대한 공적·사적 투자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 대학 교육과 산업 현장의 괴리, 산업 인력의 재교육 부족 등으로 인적 자원의 고도화가 미흡함
 - 여기에 더하여 저출산·고령화, 청년 실업 등으로 노동 공급의 양적 규모도 급감하고 있어서 노동력 수급 문제도 개선해나가야 하는 상황임¹⁷⁾

1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R&D 투자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2007. 2.

17) 한국은행, 「우리경제의 장기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과제」, 2003.

- 따라서 현 상황에서의 인적 자원 관련 정책은 질적 고도화에 무게 중심을 두되 부족한 자원의 양적 확대 정책도 병행해 나가야 함
- **물적 자본 역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의 토대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투자 유인을 높여나가야 할 것임**
 - 1990년대 전반의 과잉투자 여파로 1990년대 후반에는 물적자본의 성장기여율이 소폭 하락하였지만 물적자본은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초적인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장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음
 - 또한, 경제 전체 견지에서 자본축적은 외부경제를 유발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함¹⁸⁾
 - 따라서, 물적 자본 투자에 의존한 성장 전략은 지양하되,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해나가야 할 것임
- **이외에도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여기에는 국가 경영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신성장동력산업의 발굴, 금융·물류·통상 등의 허브화 추진, 국토 활용 효율성 제고, 법 질서 준수 등이 포함됨

2) 세부 과제

- **첫째, 국가 R&D의 절대 금액을 대폭적으로 늘리기 위한 정책이 요구됨**
 - 우리나라 전체 R&D 규모를 현 GDP의 3% 미만에서 5% 이상으로 증대하여 절대액에 있어서의 선진국 격차를 좁혀나가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 정부는 R&D 예산을 대폭 증대하고, 민간(응용기술)과의 역할 분담을 감안하여 정부 예산을 기초과학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함¹⁹⁾
 - 또한, 민간의 R&D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R&D 비용의 세액 공제, 정부 예산의 매칭 투자, 저렴한 R&D 콤플렉스 공급 등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하

18) Romer(1986),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pp. 1002~1037.

19) 우리나라 정부부문의 연구개발투자 비중은 24%(2003년)로 일본의 18%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미국의 31%(2003년), 프랑스의 38%(2002년), 영국의 27%(2002년)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는 것도 검토해야 함

- 또한,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R&D 관리부서 단일화, 기술개발부터 상업화까지 체계적인 지원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둘째, 국내 주요 거점 도시별로 과학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해나가야 함

- 새롭게 조성하는 연구단지는 선진국 수준의 연구관련 시설을 확보하고 산학연 연계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 교육, 의료, 주거 등 모든 측면에서 독립적인 도시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
- 또한, 저렴한 가격에 민간 공급이 가능하도록 국가 차원의 투자 개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내외국인의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통하여 자본 스톡 증가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기업 규제를 제거하는 수준보다 한발 더 나아가 투자 인센티브 패키지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하여 조세, 토지 비용, 노사 관계, 행정규제, 외국인 주거 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경제특구를 조성해야 함

- 넷째, 신성장 동력 산업의 지속적 발굴이 필요함

- 기존산업의 첨단화를 위해서는 기존 제품, 부가가치 구조, 생산 및 조달 네트워크의 고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기술 융합 제품 개발 촉진, 미래형 첨단 제품 개발 강화, R&D·디자인·기술경영능력 제고 투자,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가 필요함
- 또한, 의료, 교육, 사업서비스, 관광 등 서비스업의 대형화, 선진화를 위하여 세제 혜택, 시장 개방, 제도 개선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책 추진 체계, 산업화, 투자환경, 경쟁 전략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및 관리 통합화,

R&D와 사업화 연계 강화, 신기술 인력 양성 지원 금융제도 도입, 국가적 인 지적 재산 형성 전략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다섯째, 인적 자본의 고도화를 위한 종합적인 인적 자원 육성 및 확충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출산장려금의 지급 등 단발성 지원보다는 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의 강화 등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함
- 고령 인력의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기 위하여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실업 해소를 위하여 노동시장과 교육정책의 연관관계를 점검하여 신규 산업인력 수급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함
- 또한, 외국 우수인재의 수입이나 재외 한국인의 자유로운 국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 등 생활 여건 개선이나, 배타적 이민정책의 정비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인적 자원 육성을 위해서는 공교육 체계 정비, 대학과 산업체 간의 연계 강화뿐만 아니라
- 노령인력의 재교육, 퇴직자의 전직 지원 교육 등 평생 교육 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실업보험 지급과 연계하는 등 실질적인 재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한상곤 연구위원(3669-4120, sghan49@hri.co.kr)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원재료 및 중간재 물가 고공행진

-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12월 중 원재료 및 중간재 가격이 전년동월대비 13.5% 상승(전월대비 1.4%)하고 최종재 가격이 3.2%(전월대비 0.6%) 상승하는 등 국내물가가 순차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띄고 있음
- 한국은행의 '12월 및 연중 가공단계별물가 동향' 자료에 의하면 원재료 가격(전월대비 1.8%)과 중간재 가격(1.3%)은 곡물,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과 주요 생산업체의 공급차질 등으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음
- 최종재는 운송장비제품과 석유제품의 가격상승으로 자본재(0.4%)와 소비재(0.7%) 모두 전월에 이어 상승추세를 지속함에 따라 전월대비 0.6% 상승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3.2% 상승하여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원재료 및 중간재 가격이 시차를 두고 제품가격에 반영되는 측면을 고려하면 향후 소비자물가의 상승압력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2007						
			연간	3/4	4/4	1/4	2/4	3/4	11월	12월	
경기	경제성장률	4.2	5.0	4.8(1.2)	4.0(0.9)	4.0(0.9)	5.0(1.8)	5.2(1.3)	-	-	
	수요	소내지판매	4.1	4.7	2.9	4.5	7.1	5.3	8.5	5.9	-
		설비투자추계	6.3	7.4	11.8	5.1	11.3	12.1	-1.9	3.9	-
		건설수주	7.3	9.0	37.1	27.1	26.3	26.3	-5.6	36.3	-
		수출	12.0	14.4	16.3	13.8	14.6	14.1	9.4	17.1	15.5
	공급	광공업생산	6.3	10.1	11.3	5.2	3.3	7.0	8.3	10.8	-
		취업지수(만명)	2,286	2,315	2,331	2,330	2,284	2,370	2,361	2,374	2,326
		실업률(%)	3.7	3.5	3.3	3.2	3.6	3.2	3.1	3.0	3.1
		수입	16.4	18.4	21.1	13.0	13.4	14.6	7.2	25.9	24.0
	대외 거래	경상수지(억\$)	166	61	4	61	-17	0.3	45	18	-
무역수지(억\$)		232	161	25	75	24	51	45	21	-9	
물가	소내지물가	2.8	2.2	2.5	2.2	2.1	2.4	2.3	3.5	3.6	
	생산지물가	2.1	2.3	3.1	2.0	1.8	2.5	2.7	4.4	5.1	
	생산재물가	3.9	4.8	5.8	1.8	2.1	3.3	2.5	12.0	13.5	
	최종재물가	0.3	0.5	0.6	0.4	0.3	1.1	0.6	2.9	3.2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잔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주가, 금리, 환율의 트리플 약세

○ (해외 금융 시장) 달러화, 엔화에 대한 약세 지속

- 금리: 씨티그룹 등 금융기관의 서브프라임 투자관련 손실 확대 및 미 연준의 최소한 0.5%p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전주말 대비 대폭 하락 (국채 10년물 : 3.78→3.62%)
- 환율: 달러화는 유로지역 경제의 동반침체 가능성 등으로 유로화에 소폭 강세를 보였고, 주요국의 주가하락 등에 따른 캐리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청산되면서 엔화에 대해 약세를 보임 (\$/€ : 1.4776→1.4642, ¥/\$: 108.9→106.5)

○ (국내 금융 시장) 주가, 금리, 환율의 트리플 약세

- 주가: 씨티그룹의 실적부진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순매도가 지속되면서 1,700p 아래로 하락한 이후 저가매수가 유입되어 반등하였지만 주말 대비 대폭 하락 (1,782.3→1,734.7)
- 금리: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세로 5.35%까지 하락하다가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으로 5.45%까지 급등하였으나, 다시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급락세를 보이며 전주말 대비 하락 (국고채 3년 수익률, 5.52→5.36%)
- 환율: 미 씨티그룹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으로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역외세력 등의 달러화 매수세 유입과 외국인주식투자자의 대규모 주식순매도 송금 수요 등으로 전주말 대비 상승 (937.6→942.8원)

○ (전망) 대외 불안 요인 상존으로 금융시장 혼조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6		2007				2008	
		3/4	4/4	1/4	2/4	3/4	4/4	1.11	1.18 ¹⁾
국내	거래소 주가	1,371.4	1,434.5	1,452.5	1,743.6	1,946.5	1,897.1	1,782.3	1,734.7
	국고채3년(%)	4.57	4.92	4.76	5.26	5.46	5.74	5.52	5.36
	원/달러	946.2	929.8	940.9	923.8	915.1	936.1	937.6	942.8
해외	DOW	11,679	12,463	12,354	13,409	13,896	13,265	12,606	12,159
	Nikkei	16,128	17,226	17,288	18,138	16,786	15,308	14,111	13,783
	미국채10년(%)	4.63	4.70	4.57	5.02	4.59	4.02	3.78	3.62
	일국채10년(%)	1.68	1.69	1.60	1.88	1.69	1.51	1.44	1.42
	달러/유로	1.2674	1.3199	1.3354	1.3542	1.4267	1.4593	1.4776	1.4642
	엔/달러	118.18	119.07	117.83	123.18	114.80	111.65	108.9	106.5
	두바이(\$/바렐)	57.33	56.71	63.12	66.42	76.64	89.06	87.50	85.75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1.1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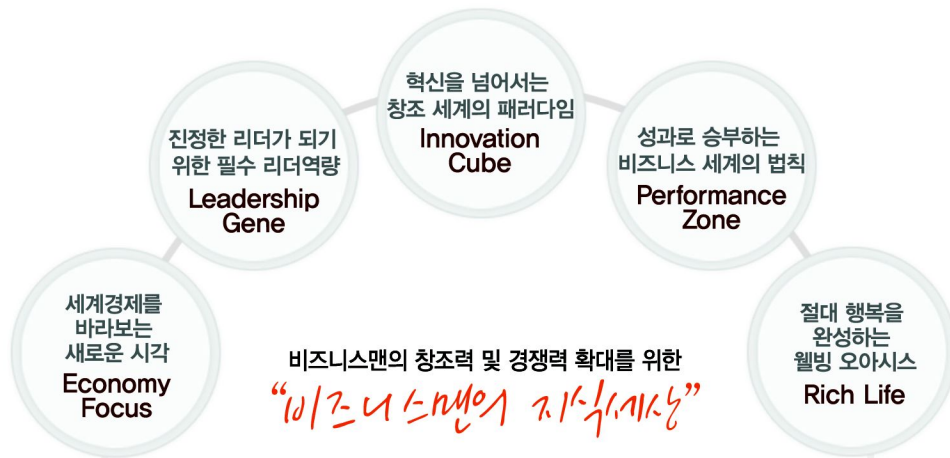
내 인생 최고의 멘토를 만나다!

Creative business contents tank, Usociety

21세기는 지식 경쟁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트렌드, 나만 뒤쳐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비즈니스맨들의 창조력 충전 및 경쟁력 확대를 위한 지식 정보 콘텐츠,
 Usociety에서 만나보세요.

비즈니스 지식 정보 TV, CreativeTV.co.kr

창조의 5분, 성공의 5분! 그 5분을 위한 다이제스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Usociety의 미션입니다.
 HD VIDEO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과 지혜를 나누십시오.



글로벌 비즈니스의 완성, EBS 어학 프로그램

최고의 어학 강의, EBS 어학 콘텐츠! 국내 대표 강사진들의 명 강의로 구성된 3,200편 이상의 풍부한 어학 프로그램을 Usociety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Business	Conversation	Global
영어인터뷰 START 인터뷰 영어족보 비즈니스영어 모질게 new TOEIC 비겁한 new TOEIC 외	Style English Survival English 영어 말하기 START Oxford 회화 말미잘 English 외	리듬 중국어 입문 이키이키 일본어 러시아어 첫걸음 스페인어 첫걸음 터키어 첫걸음 외

차별화된 경쟁력, Competency Tools

지식노트

경제, 사회, 문화에서 저널까지 한 눈에 보는 weekly webzine

U-Times

지식 트렌드를 손에 잡을 수 있는 콘텐츠 매거진

U-Planner

프로페셔널리즘의 시작, 웹 프랭클린 플래너

eBook

비즈니스에서 교양까지, 신간으로만 채워지는 digital library